한 형 조

무문관 탐방

36

육조의 의발 ⑤

"어디에 먼지가 앉을 것인가"

혜능, 가사 · 바릿때 전수 법의 등불이어

새벽에 일어난 5조는 벽화가 그려질 자리에 붙은 시 한수를 보았다. 그는 단박에 신수의 작품임을 알아 보았다. 5조의 실망은 컸다. 그 시는 아직 선의 근본에 이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신수의 체면을 생각하여 내색은 하지 않았다. "〈금강경〉은 무릇 모든 존재하는 것은 허망하다고 했다. 이 게송을 지침으로 수행하면 3악도(惡途)를 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불러 게송을 외고 향을 피우라고 일렀다.

5조는 깊은 밤중에 신수를 처소로 불렀다. "이 시는 네가 지었겠다?" 신수는 대답했다. "용서하십시오. 조사 자리를 탐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스승께서 낸 문제를 고민하다 어줍잖게 낸 답안지일 뿐입니다." "안타깝게도 너는 아직 너의 본성에 이르지 못했다. 불법(佛法)의 문 앞에서 서성거릴 뿐, 아직 문 안으로 들어서지는 못했다는 말이다. 일반인들이 이 게송에 따라 수행한다면 타락은 않겠지만 궁극적인 깨달음을 기약할 수는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일렀다. "물러가거라. 가서 하루 이틀 더 고민해보고 다시 게송을 지어라. 본성의 실제와 불법의 진리를 꿰뚫었다고 여겨지면 네게 대대로 전해오는 가사를 물려주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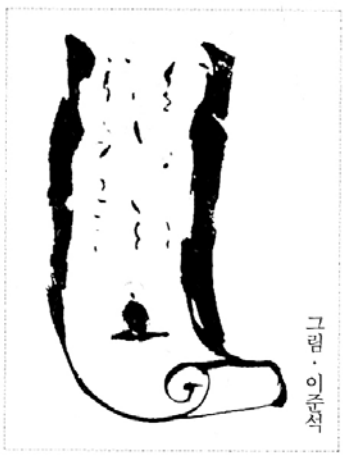


그림 · 이준석

신수는 무겁게 절하고 물러나왔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으나 더 이상 게송을 지을 수 없었다. 마음은 어지럽고 가슴은 답답하여 흡사 꿈 속을 더듬는 듯한 시간이 흘러갔다.

한편, 혜능은 여전히 방앗간에서 맡은 일에 열중하고 있었다. 어느날 수행자 하나가 신수의 게송을 나직히 읊조리며 지나갔다. 혜능은 그 시가 아직 설익은 것임을 알고, 수행자에게 누가 지은 것이냐고 물었다. 그는 절간 돌아가는 사정에 무지한 오랑캐를 한심해 하면서도 자초지종을 들려 주었다. 혜능은 그를 붙잡고 이렇게 부탁했다. "선배님, 저는 여기서 8개월동안 방아를 찧고 있는데 한번도 노스님 계신 곳에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저도 그 게송에 합장하고 참예할 수 있도록 데려가 주십시오." 혜능은 신수의 게송 앞에 이르렀지만 글자를 읽지 못했다. 마침 그곳에 있던 장모(張某)라는 지방관리가 혜능을 위해 큰 소리로 읽어주었다. 전체의 뜻을 파악한 혜능은 "저도 한번 게송을 지을테니 그 옆에 좀 써 주십시오"라고 부탁했다. 지방관리는 이 제안에, 무식한 오랑캐가 웬 가당찮은 짓이냐면서 콧웃음을 쳤다. 혜능은 이렇게 대꾸했다. "부처님의 가르침, 깨달음의 지혜를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초보자라 해서 업수이 여겨서는 안됩니다. 속담에 이르기를 가장 낮은 사람도 최상의 지혜를 가질 수 있고, 가장 높은 사람도 지혜를 결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남을 업신여기는 것만큼 큰 죄가 없습니다." 머쓱해진 관리는 어쨌거나 어디 한번 불러보라고 했고, 혜능은 단숨에 시를 읊어 내렸다.

깨달음에는 본래 나무가 없고 (菩提本無樹)
밝은 거울 역시 받침이 없다. (明鏡亦非臺)
본래 아무것도 없거니 (本來無一物)
어디에 먼지가 앉을 것이랴 (何處惹塵埃)

이 시를 보고 대중이 모두 놀랐다. 그들은 탄성을 연발하며 웅성거렸다. "사람은 생긴거나 행색 갖고는 모를 일일세. 우리가 그동안 살아있는 보살을 부려먹어 왔던거 아니야?" 제자들의 동요에 오히려 5조가 당황했다. 혜능의 신변을 우려하여 그는 퉁명스럽게 내질렀다. "이 게송 또한 본성을 제대로 보지 못한 거야." 그러면서 지팡이로 땅바닥을 세번 쿵쿵 쳤다. 모두들 움찔하며 돌아갔지만, 혜능은 그것이 야반에 자신을 찾아오라는 신호임을 알아챘다.

밤의 정적 속에 혜능은 5조의 처소를 찾아갔다. 5조는 불빛이 새 나가지 않게 창문을 가사로 덮어 놓고 〈금강경〉을 설하기 시작했다. "어디에고 머무름이 없이 마음을 내야한다(應無所住而生其心)"는 대목에 이르러 혜능의 마음이 환하게 밝아졌다. 세상의 모든 존재가 자신의 본성을 온전히 갖고 있고 그것은 염정(染淨)도 생사(生死)도 없는 영원의 것임을 투철히 알게 되었던 것이다. 5조는 이에 대해 "본심을 터득하지 못하면 배움은 아무 쓸모가 없다. 본성과 만날 때 너는 곧 대장부요, 천상천하의 스승이요, 바로 부처이다"라고 확언해 주었다.

5조는 서랍에 고이 모신 가사와 바릿때를 건네 주었다. "너를 6대의 조사로 삼는다. 스스로를 지키고 널리 중생을 건져 법의 등불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라."

5조는 사람 사이의 일을 우려했다. 법을 위해 모인 집단이지만 세속의 욕망과 다툼이 없을 수 없는 현실을 냉정히 바라보고 있었다. 5백이 넘는 대중들은 모두 고참이며 나이도 많은 신수를 따르고 의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겨우 스물이 넘은 애송이에게, 그것도 입문한지 아직 채 1년도 안된 신참에게, 그것도 불경 하나 제대로 읽을 줄 모르는 남방의 야만인에게 후계를 넘겨준다는 것이 몰고올 파장은 심히 두려운 것이었다. 5조는 혜능을 고향으로 내려보내 당분간 은둔시킬 생각을 굳혔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法數로 배우는 불교

〈46〉

화엄경 입법계품에 등장하는 인물 부처세계 들어가는 구도과정 설법

다승불교의 최고 경전을 치라면 〈화엄경〉을 든다. 부처님께서 성도 후 21일간에 걸쳐 해인삼매 속에서 설하셨다는 이 경은 우주세계 그대로가 부처며 깨달음임을 나타내고 있다. 〈화엄경〉의 한역본에는 사십권본 육십권본 팔십권본의 세가지가 있다. 그러나 이중 사십권본은 육십권이나 팔십권본 중의 한 품을 번역한 것에 불과하다. 가장 먼저 번역된 육십 〈화엄경〉은 삼만팔천의 게송, 삼십사품으로 짜여져 있고 설법한 장소는 일곱군데이며 여덟번에 걸쳐 설한것으로 되어있다. 다음의 팔십권본은 사만오천의 게송, 삼십구품으로 짜여져 있고 설법한 장소는 일곱곳이며 아홉번에 걸쳐 설한 것으로 되어있다. 이러한 〈화엄경〉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은 십지품과 입법계품이다. 이 두품은 〈십지경(十地經)〉이라고 하는 독립된 경으로 전해질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십지품은 보살이 수행하는 열가지 계위, 즉 중생이 부처가 되는 열가지 차례와 경지를 설하고 있으며 입법계품은 선재라는 수행자가 부처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 닦는 구도 과정에 대해 설하고 있다. 그 중 입법계품을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다.

53선지식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서 보현보살 등 오백보살, 오백성문과 함께 계실 때에 '사자가 기운을 뻗는 것과 같은 삼매(獅子頻申三昧)'에 드시게 되었다. 그때 사방에서 수많은 보살들이 모여와 부처님을 찬탄하자 보현보살은 열가지 법으로 부처님의 사자빈신삼매의 뜻을 말하였다. 이에 부처님은 모든 보살들을 이 삼매에 함께 들게하기 위해서 미간의 흰털로 큰 광명을 발하니 온갖세계가 빛으로 장엄되고 이 광경을 본 보살들은 부처님의 공덕바다에 깊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을 근본 법회라 한다. 그러자 문수보살은 사리불과 목건련등 여러사람을 데리고 남쪽으로 떠난다. 문수보살 일행이 복성이라는 지역의 동쪽 사라숲에 있는 큰 탑에 머물게 되었을 때였다. 수많은 사람들이 문수보살 앞에 모여들었다. 문수보살은 그 중에서 부처의 법을 받을 만한 선재라는 동자를 발견하고 "그대는 이미 법을 깨닫고자 마음을 일으켰으니 남쪽으로 떠나 여러 스승을 찾아 가르침을 닦으라"고 말했다.

이에 선재동자는 문수보살의 가르침대로 남쪽으로 110개의 성을 여행하면서 53명의 스승을 만나게 되고 그들로부터 묘한 법문을 깨치게 되니 이것을 가지 법회라 한다.

선재동자가 만난 인물과 배운 내용은 매우 다양하고 심후하다. 선재동자의 구도 행각을 보면 맨처음 문수보살을 만나서는 열가지 믿음(十信)을 얻게 되었고, 덕운비구 해운비구 선주비구 마가장자 해탈장자 해당비구 휴사거사 비목선인 승열바라문 자행동녀에게서는 열가지 마음 머무는 법(十住)을 얻게 되었다. 또 남으로 가면서 만난 자재주동자 구족신여인 명지거사 법보계 장자 보안장자 무염족왕 부동신여인에게서는 열가지 행해야될 법(十行)을, 또 육향장자 바시라선사 무상승장자 사자빈신비구니 바수밀다여인 바시디라뱃사공 관자재보살 정취보살 대천신 안주지신에게서는 열가지로 모든 공덕을 되돌려주는 법(十廻向)을 얻었다. 그뿐 아니라 바산타바야티 보덕정광야신 희목관찰 중생야신 묘구묘덕야신 적정음해야신 수호일체중생야신 개부수화야신 대원정진야신 묘덕원만야신 구바석종녀에게서는 수행에 따라 열리는 열단계 지위(十地)를, 마야부인 천주광천녀 변우동자사 중예동자 현승여인 견고해탈장자 묘월장자 무승군장자 적정바라문 덕생동자 미륵보살 그리고 다시 찾은 문수보살에게서는 부처직전의 경지인 등각(等覺)을 얻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현보살을 만나 열가지 깨뜨릴수 없는 최상의 지혜법문을 듣고 모든 부처님과 더불어 평등하게 되는 묘각(妙覺)의 법을 얻는 것으로 선재가 부처님 법계에 어떻게 들어가는가를 끝으로 〈화엄경〉 법회가 마친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확인하고 가야될 부분이 있다. 선재동자를 비롯한 문수보살등의 53선지식은 과연 누구인가 하는 점이다.

이분들은 역사상 실재인물은 아니다. 그러므로 선재동자가 겪은 수많은 사건역시 겉으로 드러난 실재가 아니다. 그것은 부처님의 한량 없는 깨달음속에서 방편으로 일으킨 인물 아닌 인물이며 사건아닌 사건이다. 부처님과 선재와 문수 보현 그리고 53선지식은 본래 하나인 셈이다. 〈화엄경〉에서는 부처의 마음과 중생은 차별이 없다고 했다. 그렇다면 부처님을 위시한 선재동자와 53선지식 그리고 갖가지 수행과정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

이 제 열 〈유마선원장〉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⑭

불교와 수학

39

분별과 禪

김 용 운

해석기하학 '분별' 통해 문제 해결

禪 세계 무한대·무한소 구별 무의미

근대 과학의 아버지로 일컬어지는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의 명구로 유명하다. 이 달귀는 〈방법서설〉에 수록되어 있는데 본래의 책 이름은 〈이성을 올바르게 유도하고 모든 학문에 있어서 진리를 얻기 위한 방법의 서설〉이다.

그의 방법은 다음 4가지로 분류되어 있다.

1. 내가 분명하게 진리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이라도 진실로 인정하지 않는 속단과 편견을 피하고 완벽하게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확실하게 내 마음에 잡히는 것 이외에는 어떤 것도 판단 자료에 편입시키지 않는다.

2. 검토할 대상은 가능한 단순한 작은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한다.

3. 단순하고 인식하기 쉬운 것부터 시작하여 차례로 복잡한 것으로 인식해 간다. 질서를 정하고 또 자신의 생각을 질서 있게 유도해 간다.

4. 이와 같은 분석과 종합의 과정에서 빠진 것이 없다고 확신할 수 있도록 광범위하게 점검한다.

수학은 이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왔다. 데카르트 자신은 이 생각을 기초로 삼아 좌표를 발명하여 해석기하학을 수립했다. 이것이 곧 '분별'의 구체적인 방법이다.

한편 선(禪)은 분별의 긴 뿌리를 파헤치며 지(知)와 나(我)를 포섭시킨다. 현상은 항시 인간의 분별심을 자아내는 가치와 한정을 초월하면서 유유히 전개해 간다.

〈임제록〉에는 유마경의 주인공 유마거사와 부대사(傅大士)를 등장시킨다. 유마거사는 석가모니께서 살아 계실 무렵 왕사성(王舍城) 가까운 곳에서 상업에 종사했다. 대부호로 알려진 실존한 인물이다. 부대사는 양나라 때 실존한 인물이며 법회를 하기 위해 아내를 팔기까지 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라도 희생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보살행을 실천한 것이다. 유마거사는 절대 세계를 좁은 방에 응축하고 모든 것을 포섭했다. 한편 부대사는 현실 생활 속에 중생과 함께 고뇌하며 보살행을 한 인물이다. 이들은 대조적으로 실천을 하면서 불교 정신의 양극단을 몸소 나타내고 있다. 대조적이면서도 하나의 세계이다.

그림 · 최주현

임제화상은 "한 사람(유마거사)은 우뚝 선 높은 산봉우리(孤峰頂上)에 있으며 일상생활을 초월하여 스스로 대오의 자리를 확립하고 있다. 수행의 극한을 다해서 수행하는 일조차도 의식하지 않은 것이다. 또 한 사람(부대사)은 십자로 한 가운데(十字街頭)에서 앞 뒤 어디로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 자유로이 동서남북, 어디로나 갈 수 있는데도 꼼짝하지 않고 그대로 절대 자유의 입장을 즐기고, 그의 자유 정신은 현실 생활 속에서 작동하고 있다"며 "자 이들 사이에 어느쪽이 앞서 있고 어느 쪽이 뒤에 있는가?"하고 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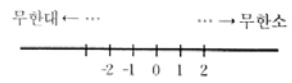
이와 같이 물은 뒤 임제는 스스로 "유마거사도 아니며 부대사도 아니다"라는 말을 덧붙였다.

이들 세계는 절대 경지로서 구별할 수 없음을 말한 것이다. 데카르트 이래 근대 수학은 늘 대상을 구별해 왔다. 이 분별의 눈으로는 모든 것이 구별되는 것이므로 임제의 말은 모순되는 것이다.

임제는 모처럼 대오의 경지를 얻은 두 사람을 등장시키면서 이들 사이를 구별하는 일이 무의미함을 말한다.

고봉정상(孤峰頂上)은 진리의 한가운데 최고의 진리와 하나가 된 모습이며 십자가두(十字街頭)는 일생생활에 쫓기며 사는 모습이다. 이들 사이는 무한대와 무한소의 관계처럼 보인다. 이들 사이에 취사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일까?

무한대와 무한소는 마치 원환의 양끝이다. 데카르트에서는 무한소에서 무한대를 일직선상에 놓고 그들 사이에 앞뒤의 관계를 구별한다.



선의 극치에서는 무한대와 무한소가 겹쳐져 있다. 여기서 전후를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

〈한양대 수학과 명예교수〉

歷史는 바뀔 수 있어도
佛敎傳統儀式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사찰에 輦[연]은 필수품 입니다"

시연(侍輦)은 각종 재(齋)를 베풀고 불교전통의식을 거행하는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장엄의식구로써 의례의식공간을 보다 장엄하게 장식할수 있도록
전통적예술적 아름다움이 어우러진 수공예장식품으로 제작하였고,
원목을 사용한 정교한 조각,우아한 단청, 화려한 휘장으로 3단 조립형의
장엄한 예술적 작품으로 이동시 편리하게 제작되었습니다.

종합불사조성회사
藝暲佛美院
서울特別市 龍山區 文塔洞 17-1 신화빌딩 3층
TEL:(02)704-5070(代) 704-8850

부처님과 맺은 인연 평생을 부처님을 위해 일하는 기업으로 남겠습니다.

화제의 새 책

"귀신의 병은 100% 낫는다."

구천에서 떠도는 영혼들을 기를 통해
저승길로 인도하는 연화심 보살의
영능력 세계!

영혼을 천도하는 연화심

김점기 지음

뚜렷한 병명 없이 아픈 사람들이나
신이 내렸다고 하는 사람들을
손하나 대지 않고 치유하는
신통력을 지닌 연화심 보살

"기를 모으면 영혼을 부를 수가
있는데 빛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현생에서 지은 업의 크고 작음에 따라
색이 다르게 나타나죠. 저승에 가지 못하고
떠도는 혼들을 사후세계로 보내주면 혼령
이 붙어서 원인 모르는 병으로 고생하던 사
람들이 씻은 듯이 낫게 됩니다."
-〈여성중앙〉-

신국판 240쪽/값6,000원

• 읽고 난 후 저자에게 문의하실 분은 〈지장정사〉로 연락하세요.
전화 (02)651-3880

도서출판 서울 관악구 남현동 1054-5호 중앙B/D
전화:3474-3521(영업부) 팩스:3474-3524